

蓬萊別曲의 研究

朴 智 弘

蓬萊別曲은 釜山의 歷代文學에서 전해 오는 오직 하나의 가사이다. 이는 1933年 1월 24일 釜山日報를 통해서 李周洪 교수님이 처음으로 세상에 소개했었다.

지은이는 高宗 때 사람인 東萊府使 鄭顯德이요, 내용은 가사의 이름과 같이 蓬萊 곧 東萊의 노래이다. 이는 梵魚寺에서 시작해서 太宗臺까지의 遊覽으로 끝나 있으므로, 釜山의 文學으로서는 특히 稀貴한 작품이 되겠다. 이제 가사를 소개하면 이렇다.

蓬萊山⁽¹⁾ 옛말 듯고, 예 와 보니 지척⁽²⁾이라.

東海水 淸明한데, 魯仲連⁽³⁾이 간 곳 없다.

徐氏⁽⁴⁾의 採藥舟에 童男童女 못 보와라.

安期生⁽⁵⁾ 赤松子⁽⁶⁾난 白雲深處 자치 없다.

神仙말이⁽⁷⁾ 惶惶하니, 다 후려 더져 두고

所見을 말을 내니, 別曲이 되엿도다.

〔註〕

- (1) 蓬萊山...中國의 傳說에 東海의 東쪽에 있어 神仙이 산다는 三神山의 하나.
- (2) 지척이라(咫尺)...東海가 지척이란 뜻.
- (3) 魯仲連...戰國시대 齊나라 사람. 웅변가. 용기와 절개로 유명함. 후에 바다로 도망하여 숨어서 살았다 함.

- (4) 徐氏…秦나라 때 사람 徐福을 가리킨 말. 진시황의 명을 받아 童男
童女 3,000명을 배에 실어 떠난 후 돌아오지 않았다 함.
- (5) 安期生…옛날 오래 산 사람. 海邊가에서 藥을 팔고 다녔다 함.
- (6) 赤松子…옛날에 살았다는 신선 이름.
- (7) 神仙말이…신선이 있단 말은.

丈夫慷慨 못 이겨서 多遊하야 살펴 보니,
金井山城⁽⁸⁾ 大排布에 梵魚寺⁽⁹⁾가 더욱 조타.
蘇蝦亭⁽¹⁰⁾ 드러가니 處士난 간곳 업고
遊仙台 올라가니 道士난 어대 간고
溫井⁽¹¹⁾ 藥水 神効하니 病人治療 근심업다
盂山이⁽¹²⁾ 案山⁽¹³⁾ 되고 슈무막이⁽¹⁴⁾ 되엿도다
靖遠樓⁽¹⁵⁾ 바라보니 노교슈⁽¹⁶⁾ 어대 때요
安樂書院⁽¹⁷⁾ 드러가니 忠臣烈士 기록하다.

- (8) 金井山城…東萊山城을 이름. 東萊山城은 東萊府의 外城으로 전란
이 있을 때에 부민들이 피난하던 곳이라 한다. 이는 金井山 꼭두마
기에 있기 때문에 金井山城이라고도 한다. 성은 둘레가 약 6만 8천
자, 높이 20자로 아주 웅대하다. 이는 1703년(숙종 때) 경상도 감사
趙泰東이 성을 쌓기 시작해서 1707년 東萊府使 韓配夏에 의해 완성
되었다 한다.
- (9) 梵魚寺…절 이름. 金井山 속에 있음. 三十一본산의 하나. 신라 때
義湘 대사가 지었음.
- (10) 蘇蝦亭…지금 溫泉과 釜山大學의 사이에 있는 蘇亭마을에 있던 정
자. 東萊府誌에 의하면 소정은 東軒에서 十五里로서 金井山 속에 있
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府誌를 만들던 무렵(1778)에는 이미 정자
가 없었다고 한다. 蘇蝦는 處士로서 흰 사슴을 타고 金龜仙人(道
士?)과 놀았다고 한다. 遊仙台란 신선이 놀던台山 뜻인 듯.

- (11) 溫井…東萊溫泉
- (12) 釜山…釜山敎大 정문에서 마주 바라보이는 산.
- (13) 案山…집이나 뒷자리의 맞은편 산. 풍수상 요소의 하나.
- (14) 슈구막이…風水地理에서 쓰는 말.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멀리 돌아 흘러서 하류가 보이지 않게 된 땅의 형세.
- (15) 靖遠樓…누각 이름. 동래 군청 앞에 있었음. 十二間. 壬亂때 탄 것을 肅宗 34년(1708) 韓配夏가 重建 지금은 毀撤되어 그 기와는 觀光호텔 別館에 使用云.
- (16) 노교슈…壬辰亂 때 東萊府 教授 盧蓋邦이 이 樓에서 北向再拜하고 節死하였음.
- (17) 安樂書院…東萊城 東門밖 700m 安樂洞에 있다. 정면의 집에는 東萊府使 宋象賢과 釜山僉使 鄭撥을 모셔져 있고 좌우의 집에는 尹興信 등 여러 장수가 모셔져 있으며, 별각에는 烈女 愛香과 金蟾이 모셔져 있다.

荒嶺峰⁽¹⁸⁾ 올라갈제 竹杖芒鞋 醉한 몸이
 左편은 水營이요⁽¹⁹⁾ 右편은 釜山⁽²⁰⁾이라
 對馬島 一岐島난 海外에 둘너 있다
 沒雲台⁽²¹⁾ 海雲台⁽²²⁾난 勝地라 이르니라
 永嘉台⁽²³⁾ 노훈집은 釜山景概 제일이라.
 節制使⁽²⁴⁾ 主鎮되고 兩浦⁽²⁵⁾ 萬戶⁽²⁶⁾ 附庸⁽²⁷⁾대야
 倭館⁽²⁸⁾을 防衛하니 남고쇠락⁽²⁹⁾ 여기로다.
 壬辰年 八年兵火 忠臣烈士 기뉴신고
 宋忠臣⁽³⁰⁾ 鄭忠將⁽³¹⁾은 紫衣黑衣⁽³²⁾ 거룩하다
 形色⁽³³⁾千秋 못 이져서 殉節터의 築壇⁽³⁴⁾하니
 烈女로 扶植⁽³⁵⁾하고 壯士로 配享⁽³⁶⁾한다.
 子城台⁽³⁷⁾ 一片石⁽³⁸⁾은 萬古史蹟 기뉴 아리
 大明⁽³⁹⁾ 恩德 값으랴면 昊天이 岡極⁽⁴⁰⁾하다.

- (18) 荒嶺峰…現在 港都高等學校의 뒷산.
- (19) 水營…慶尙道 左水營, 現在の 釜山市 水營洞. 지금도 水營城이 대
부분 남아 있다.
- (20) 釜山…여기의 釜山은 舊釜山으로서 佐川洞과 凡一洞이 이에 해당
된다.
- (21) 沒雲台…부산의 명승지. 多大浦 남 쪽 10리에 있다.
- (22) 海雲台…부산시 명승지.
- (23) 永嘉臺…城南國民學校 西便 鐵路사이에 있던 높은 언덕. 光海主 六
年 慶尙道 巡察使 權時이 港灣을 개척하고 언덕 위에 八間亭子를 세
운 후 정자 이름을 자기의 고향인 永嘉(安東의 옛 이름)로 붙였다
한다. 지금은 언덕마저 없음.
- (24) 節制使…본이름은 兵馬節制使 水軍節制使. 절도사 밑에 달려 있
던 巨鎮에 있던 정삼품의 벼슬. 여기서는 水軍節制使가 있던 釜山
鎮을 가리킴.
- (25) 兩浦…豆毛浦? 開雲浦?
- (26) 萬戶…여러 鎮에 붙었던 종4품의 무관자리.
- (27) 附庸…의지하여 독립하지 못함. 여기서는 ‘붙어서’의 뜻.
- (28) 倭館…倭館은 倭人이 통상하던 장소로서 부산에 설치했던 관사. 草
梁에 있었다.
- (29) 남고쇠락…南微鎖鑰를 말함인 듯 : 釜山城石碑에 南微咽喉 西門鎖
鑰이나 써져 있기 때문. 이 비는 현재 城南國民學校 뜰에 있다.
- (30) 宋忠臣…東萊府使 宋象賢을 가리킨다.
- (31) 鄭忠將…釜山僉使 鄭撥을 가리킨다.
- (32) 紫衣黑衣…紫衣는 宋府使, 黑衣는 鄭僉使를 가리킨다.
鄭撥은 상례 검은 도포를 입었다고 한다.
- (33) 形色…모습의 뜻.
- (34) 築壇하니…鄭公壇을 세우니의 뜻. 鄭公壇은 현재 佐川洞에 있다.
여기는 임진란 때 鄭僉使가 전사한 자리이다. 宣祖 35년에 세운 것
이다.

- (35) 扶植…도와서 서게 함. 鄭公壇에 가면 鄭僉使 碑 곁에 烈女 愛香의 비가 서 있음.
- (36) 配享(?)…공 있는이를 곁에 함께 모심을 이름 鄭公壇에 가면 鄭僉使의 碑곁에 戰亡諸公碑가 서 있다.
- (37) 子城台…凡一洞에서 大淵洞으로 가기 약 500m 가면 오른쪽에 있는 臺.
- (38) 一片石…子城台 위에 있는 明將. 萬世德 經理의 碑石을 말함. 萬世德은 戰爭處理를 잘한 장군이므로 生祠堂을 지어 그 功을 찬양하였다.*
- (39) 大明…중국 明을 높여 부른 말.
- (40) 昊天罔極…詩經에 나오는 말. 하늘처럼 넓어서 끝이 없다는 뜻.
* 이상이 荒嶺山에서 본 광경인 듯.

鄭墓⁽⁴¹⁾라 이른 말은 東萊鄭氏 始祖로다.
東平縣⁽⁴²⁾ 古邑터의 人家도 櫛比하다.
列女閣 孝子碑난 大路邊의 포랑⁽⁴³⁾이라.
甌臺城⁽⁴⁴⁾上 둘러보니 倭城⁽⁴⁵⁾이 분명하다.
龜峰峰⁽⁴⁶⁾ 泰平하니 邊方에 일이 업다.
개원⁽⁴⁷⁾ 豆毛⁽⁴⁸⁾ 다 지내니 草梁浦村 分明하다.

- (41) 鄭墓…東萊鄭氏 始祖 鄭文道の 墓・明堂자리로서 유명하다.
- (42) 東平縣…東萊府의 屬縣. 現在의 堂甘洞은 舊東平縣 자취.
- (43) 포랑…褒揚(?) 褒揚은 褒獎과 같다. 칭찬하고 장려함.
- (44) 甌臺城…지금의 이른 바 釜山城 壬辰亂 때 倭人이 築城한 것.
- (45) 턴이…터인 것이, * ‘터인 이이’의 준말 ‘이’는 “것”과 같다.
- (46) 龜峰峰…龜峰山 釜山高等學校 뒷산. 봉화대가 있었다.
- (47) 개원…開雲浦(?) 開雲浦는 지금의 釜山 龍湖附近.
- (48) 豆毛…豆毛浦. 지금의 수정동 일대.

守設門⁽⁴⁹⁾ 嚴肅하니 客舍⁽⁵⁰⁾大廳 雄壯하다
 四屏山⁽⁵¹⁾ 下 宴大廳⁽⁵²⁾은 倭使接對 무삼일고
 東西館⁽⁵³⁾ 완담⁽⁵⁴⁾ 안에 동형사⁽⁵⁵⁾가 더욱조타
 大峙⁽⁵⁶⁾을 넘어가니 多大鎭⁽⁵⁷⁾이 기록하다.

降仙台⁽⁵⁸⁾ 어대매요 神仙이 노단말가
 陸地를 다 본 후에 島中⁽⁵⁹⁾을 향하리라.

- (49) 守設門…守門과 設門. 둘 다 倭館에 있던 門. 守門은 五間으로 倭館 동쪽에 있었고 設門은 三間이다.
- (50) 客舍…草梁公驛의 객사 三十三間 지금 蓬萊國民學校 자리라 한다.
- (51) 四屏山…지금 大廳洞 뒷산.
- (52) 宴大廳…宴享大廳 모두 十八間. 지금 大廳洞에 있었는데 倭使를 접대하던 곳이다. 宴大廳이 있었으므로 大廳洞이라 함.
- (53) 東西館…東館과 西館. 草梁 구석에 있었다 한다. 東館은 光復洞, 大廳洞 사이. 西館은 新昌洞에 있었다.
- (54) 완담…圓牆(?) 卽 둘러쌓은 담(?)
- (55) 동형사…東軒舍(?) 倭館의 東軒.
- (56) 大峙…대치고개. 槐亭과 下端 사이의 고개.
- (57) 多大鎭…多大浦에 있던 鎭.
- (58) 降仙台…下端 북쪽 700m에 있다.
- (59) 島中…섬속 여기서는 絕影島.

絕影島⁽⁶⁰⁾ 드러가니 水路十里 的實하다.
 山下는 牧場되여 三千駿馬 聳動⁽⁶¹⁾이라
 山上은 封山⁽⁶²⁾되여 왜시⁽⁶³⁾入禁 多事하다.
 점점 지피⁽⁶⁴⁾ 드러가니 數三漁村뿐이로다.
 伐木겨경⁽⁶⁵⁾ 차자가서 太宗台⁽⁶⁶⁾ 다달으니

海上의 높은 바위 千丈萬丈뿐이로다.

관청대⁽⁶⁷⁾가 그 앞이요 동우섬⁽⁶⁸⁾이 압입⁽⁶⁹⁾이라

五六島⁽⁷⁰⁾ 東편이요 牛岩浦⁽⁷¹⁾ 南 北便이라

滄浪歌 한 曲調에 仙境이 的實하다.

仙緣이 엮뒀던지⁽⁷²⁾ 江塵의 일이 만타.

秦始皇⁽⁷³⁾ 漢武帝⁽⁷⁴⁾ 도 이 곳을 어이 보리.

(60) 絶影島...부산 앞의 큰 섬. 옛날 이 곳에 牧場이 있었다.

(61) 聳動...굴뚝거림.

(62) 封山...나라에서 채벌을 금지한 산.

(63) 왜서...外寺(?) 外寺는 司僕寺 궁중의 輿馬 厩牧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청.

*外寺入禁 多事하다. ...外寺들이 入山하는 사람을 막느라고 일이 많다는 뜻인가?

(64) 지피...깊이의 사투리.

(65) 거경...蹊徑의 잘못(?) 蹊徑은 작은 길.

(66) 太宗台...부산의 명승지. 우거진 숲과 기이한 바위로 유명하다. 신라太宗이 백제를 부순 후 天下의 명승지를 찾아 놀 때 이 곳을 다녀갔으므로 太宗台라고 한다고.

(67) 관청대...觀聽台(?)

(68) 동우섬...太宗台에 있는 鎭盆島.

(69) 압입...압섬의 잘못(?)

(70) 五六島...부산의 명승지. 들섬.

(71) 牛岩浦...지금의 牛岩洞. 神仙台에서 멀리 바다 건너로 바라보인다.

(72) 엮뒀던지...엮었던지

(73) 秦始皇...秦나라 始皇帝

(74) 漢武帝...漢나라 武帝

니내몸 무삼 緣分 仙境을 遍踏하고
 不死藥 잇다 말이 方士의 빌말이라
 吳道子⁽⁷⁶⁾의 腹中山川⁽⁷⁶⁾의 누라서 알아⁽⁷⁷⁾ 내리
 니내몸 虛浪⁽⁷⁸⁾ 하여 江山을 周遊⁽⁷⁹⁾ 하니
 歲月이 如流⁽⁸⁰⁾ 하여 三年이 如夢⁽⁸¹⁾ 이라
 도라가 傳하고져 洛陽⁽⁸²⁾ 親舊 일어리라

(75) 吳道子...唐나라 玄宗 때의 화가. 山水畵등을 혁신했다. 唐나라 시대
의 제일 가는 화가라 한다.

(76) 腹中山川...가슴 속에 들어 있는 山川의 그림.

(77) 알아...“내리”는 筆者가 추척해서 끼어 넣었다.

*과 누라서 알아 내리...바로 그 경치가 太宗台란 뜻이다.

(78) 虛浪...언행이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함.

(79) 周遊...두루 돌아다님.

(80) 如流...물과 같음.

(81) 如夢...꿈과 같음.

(82) 洛陽...서울을 이름.

입아⁽⁸³⁾ 蓬萊⁽⁸⁴⁾ 벗님들아 내 길 막아 무어하리
 나도 가기 실타마난 聖恩이 罔極하니 갓으려 가노라.

(83) 입아...이바.

(84) 蓬萊...東萊의 딴 이름.

<남은 말>...원문은 순 한글문인 것을 筆者가 國漢文으로 고쳐 썼다. 와전이 너무
 많아 간신히 바로잡았으나, 오히려 굳힌 것이 아닌가 저어한다. 끝으로 이 校註를
 다시 校訂해서 여러 곳을 바로잡아 주신 丁仲煥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예를 사
 하는 바이다. 이 가사는 鄭顯德이 王命으로 召喚될 때 作別詞로 지은 것 같다. (끝)